

신대륙, 서구적 욕망의 그림자

- 영상물에 투영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박종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역사적 사건은 후대의 기억에 의한 재연을 통해 그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역사를 기억하고 재연하는 것은 언제나 후세의 몫이다. 기억의 재연은 나름의 시각에서 구성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균형잡힌 시선으로 재연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재해석을 요구하고, 따라서 현대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서구와 아메리카 대륙의 만남과 관련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서구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 대부분이었으며,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의한 합리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대륙이라는 용어는 철저하게 서구가 주체가 된 관계망에서 가능한 용어이며, 이는 수천 년 동안 지역에서 문명을 이뤄왔던 원주민을 소외하고 타자화하는 시각에서 그 대상을 객체화하고 관찰자의 주체적 시각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신대륙 발견의 의미를 대중문화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영상물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현대 문화의 중심이 대중적 성향으로 대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물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분석은 내용의 주제별 분류와 시대적 구분 등에 집중하고 학술적 담론과 논의 분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3)

다각적인 시각의 배경 인식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집중하며, 대중적 표현물에 투영된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일반적 시각과 그 이미지의 형성을 살펴볼 필요 뿐 아니라, 학문적 성과 또한 대중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는 사회와의 소통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는 서구의 필요에 의해 신대륙이 되었으며, 그들의 탐욕이 정복의 합리화와 정당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켰다. 향신료의 꿈으로 체화된 서구의 탐욕은 아메리카를 신대륙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엘도라도와 물신적 유토피아 등으로 동력을 얻었고, 이후 수탈과 종속의 불균형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항해 일지]에서 낙원으로 묘사되었던 아메리카는 ‘다큐멘터리-1995’에서는 서구의 자연스러운 물욕의 대상으로 기술되며, 위대한 모험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된다. [1492, 낙원의 정복]은 콜럼버스를 위대한 인문주의적 이상주의자로 재발견하려는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 엘리웃이 그를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이며 인종학살자로 묘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큐멘터리-2002’는 서구 편향적 시선을 보완하며 아메리카가 고대 문명을 비롯한 독자적 문화와 문명을 이뤄왔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엘도라도]의 사우라는 서구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 어두운 모습에 비중을 두고 있다. [나는 쿠바]는 수탈의 고착과정에 집중하며, 서구의 물신적 욕망이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연된 실체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미션]은 대중적 시각에서 원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1492, 낙원의 정복]이나 [엘도라도]와 차별되지만, 예수회 신부들의 숭고한 희생과 시대적 비극에 주목하여 또 착 원주민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역사의 기억은 시대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재연되고 재해석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비평시각도 과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전망하려는 의도에서, 현재 나와 우리 속에서 그 관련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중적 인식과 이미지의 복합적 실체에 대한 지속적 접근과 분석 및 해석 작업이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신대륙 발견, 수탈의 역사, 욕망의 이미지,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기억, 기억의 재연, 콜럼버스, 향신료, 영화 및 다큐 분석, 유토피아, 엘도라도, [1492, 낙원의 정복], [엘 도라도], [나는 쿠바], [미션], 항해일지, 최초의 세계일주, 수탈된 대지

I. 들어가는 말:

신대륙 발견을 보는 시선과 대중문화로서 영상물의 역할

어떠한 대상을 새로운 것이라 명명함은 그 대상이 새롭게 탄생했거나, 관찰자가 대상의 존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거나, 관찰자에게 대상이 새로운 용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대륙이라는 용어는 분명 그를 명명한 주체들에게 새로운 대상이 드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대륙이 발견되었다함은 서구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존재에 눈을 떴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천 년 동안 지역에서 문명을 이뤄왔던 원주민을 소외하고 타자화하는 시각에서 그 대상을 객체화하고 관찰자의 주체적 시각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이는 서구와 신대륙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균형적 시각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콜럼버스가 카리브에 도착한 지 500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 신대륙 발견의 의미 해석은 학계를 넘어 대중문화에까지 깊이 침투되고 있다. 신대륙 발견의 용어가 관습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의 변화가 시도되는 것이다. 많은 역사서가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점차 다양한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신대륙 발견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으로서 신대륙을 보는 것이다. ‘발견’과 ‘정복’, ‘개발’, ‘근대화론’ 등이 그러한 시각이다. 둘째는 원주민적 시각으로 유럽의 아메리카 상륙을 ‘착취’와 ‘수탈’이라는 구조적 틀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는 절충적 시각으로서 두 대륙의 문화와 문명이 교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만남’과 같은 가치중립적 어휘로 대표되는 시각이며, ‘탈기억’이나 ‘화해’, ‘교류’의 시각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분류만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시각들은 상호 교차되고 모순될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해석의 시선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아메리카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서구 중심 시각이 논의의 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맥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의 논의들이 제기되며, 북아메리카에 비해 라틴아메리카 경우에 두드러진다. 이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가해의 주체와 피해

의 주체에 대한 분석적 시각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신대륙 발견의 의미를 대중문화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영화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현대 문화의 중심이 대중적 성향으로 대표될 수 있는 지금 영상물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영화 자료로는 [1492, 낙원의 정복], [엘도라도], [나는 쿠바], [미션], 영상 다큐 자료로는 [스페인 역사: 시간의 밤 XIV권 아메리카의 발견], [스페인 신 역사: X권 아메리카의 발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항해일지』, 『최초의 세계일주』, 『수탈된 대지』 등 저술 등을 중심으로 하되, 대표적 역사서와 논문들을 포함한다.

연구의 수행 방법과 구체적 내용은 신대륙 발견의 의미를 단순하게 분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의 배경 인식에 대한 분석과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신대륙 발견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먼저 다룬 뒤, 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시선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인 영화와 영상 다큐 등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학술적 담론과 논의 분석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표현물에 투영된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려는 데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일반적 시각과 그 이미지의 형성을 살펴볼 필요 뿐 아니라, 학문적 성과 또한 대중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는 사회와의 소통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상물에 투영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신대륙 발견과 신세계 건설에 대한 다각적 시각의 인식과 그에 대한 분석 작업은 후속 연구의 방향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II. 역사와 기억

현재는 직·간접적으로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의 행적이 오늘날의 손익과 관계없이, 우리는 과거를 올바르게 보아야 하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는 역사로 기억되고 해석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

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어떤 식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억의 재연과 지속적인 해석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동인도에서 향신료를 구입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던 콜럼버스는 실수로 아메리카에 도착했으나, 역사는 이 사건을 ‘발견’으로 기술했다. ‘발견’은 발견자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해되며, 발견된 땅을 개발하여 그 수익을 차지할 수 있다는 당위성으로 확장된다. 이후 역사는 기술(記述)의 주체를 가변적 요소로 삼아 신대륙 발견과 건설의 당위성을 다양하게 재해석하여 왔으며, 오늘날 ‘발견’의 용어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대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 소수 학자들의 단견이 아닌 영화와 소설과 같은 대중적 문화생산물에 역사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1. 역사적 사건으로서 신대륙 발견

1) 신항로 개척의 꿈과 신대륙 발견

(1) 블루칩으로서 향신료와 신항로 개척 사업

15세기 부유한 유럽인은 동양에서 들여온 정향, 후추, 육두구, 소두구, 계피 등의 향신료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 다투어 구입했다. 정향과 육두구, 소두구 등은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향신료는 은화가 아닌 금화로 매매되곤 하였다. 향신료는 음식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향과 맛을 가미하는 높은 부가가치의 미각 식품인 것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질병에 적용되는 최고급 약리 식품으로 소개되고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교도가 점령한 이후 동쪽 무역로를 이용하려면 비싼 유통마진을 지불해야만 했다. 한 예로 주요 거래 품목이었던 향신료의 경우 원산지에서 유럽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0단계에서 12단계의 유통 과정이 있었으며, 후추의 경우 인도와 베니스에서의 거래 가격은 30배에서 40배를 넘나들었다¹⁾. 향신료는 보호무역이 팽배하던 당시

1) Manuel Lucena Salmoral(Coordinador) *Historia de Iberoamérica, Tomo II,*

서구 사회에서 최고의 무역 상품으로 떠올랐으며, 향신료를 낮은 가격에 확보 하는 집단이 권력을 쥐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후추, 정향, 육두구, 소두구, 계피 등의 세계적인 짐산지였던 몰루카 지역으로의 접근은 물리적으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지역 이외의 중립적 성격의 장소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고가의 향신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신항로 개척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꿈이 무르익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후원으로 서쪽 항로를 개척하게 된 것은 향신료 수입 루트 확보 가능성 때문이었다. 1505년 인도 탐사 함대에 입대하며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의 거대한 향신료 시장의 가능성에 눈을 떴던 마젤란 역시 콜럼버스가 꿈꾸었던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탐사를 수행하게 된다. 유럽의 주요 향신료 교역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을 거치지 않고, 인도와 몰루카 제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항로 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 1519년부터 1522년까지 만 3년에 걸친 마젤란³⁾ 함대의 세계일주 항해에 동승하며 일지를 기록했던 안토니오 피가페타가 항해의 목적을 “새로운 동인도 항로의 개척”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⁴⁾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에 의해 개척된 것⁵⁾이나, 아메리카를 향한 서쪽 항로의 개척과 마젤란 함대가 이룩하게 된

Historia Moderna. Madrid. Cátedra, 1990, p. 34.

2) 안토니오 피가페타 『최초의 세계일주』(박종욱 옮김). 서울. 바움, 2004, p. 127.

3) 마젤란은 서쪽 항로를 통해 향신료의 고장 동인도를 거쳐 스페인으로 귀국하는 세계일주 항로를 완성할 수는 없었다. 오늘날의 필리핀 세부 섬에서의 전투에서 전사하기 때문이다. 전투의 계기는 함대의 항해 목적이었던 향신료 수입 루트 개발과 영토의 확장 및 복음화와 다소 거리가 있었다. 마젤란 함대의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세부 섬을 권력의 중심으로 삼으려 했던 마젤란에 대한 막탄 섬과 주변 섬 부족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이유였다. 실라폴라푸 족장은 스페인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변 섬의 족장들과, 심지어 왕들에게 자신을 따라서 외세를 인정하지 말자는 저항 운동을 주도했다. 참조, 위의 책, pp. 169-174.

4) 위의 책, p. 63.

5) 이진,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시사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1994, pp. 42~43.

최초의 세계일주 향해 또한 블루칩이었던 향신료를 확보하고 안정된 수입 루트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항로 개척 사업은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투기였다. 막대한 시간과 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왕실은 거의 없었다⁶⁾. 따라서 신항로 개척 사업이란 왕실이 중심이 되어 부유한 상인과 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⁷⁾. 신항로 개척 사업은 국가 권력의 집중화와 대외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젤란이 스페인 왕실의 지원으로 함대를 이끌게 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진 포르투갈의 왕실은 물론이고, 사주를 받은 귀족 세력들이 탐사 항해를 방해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썼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⁸⁾.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사업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고, 신항로 개척의 목적이었던 향신료 수입 루트의 안정적 확보와 멀어졌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이어진 그의 신항로 개척 사업은 결국 향신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블루칩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안게 된 신세계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2) 신대륙, 대체된 향신료의 꿈

향신료 수입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콜럼버스의 항로 탐사는 뜻하지 않았던 지리상의 발견이 되었다. 이때의 ‘발견’은 물론 서구적 시각이다. 1492년 10월 12일 새벽 콜럼버스는 핀손 형제와 함께 F와 Y가 새겨진 깃발을 카리브에 세운다⁹⁾. 수천 년을 문명을 이루며 살아왔던 ‘구대륙’은 ‘신대륙’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바르톨로메 델 라스 까사스 수사가 필사한 판본을 통해 전해지는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는 콜럼버스 또한 마르코 폴로가 서구인들에게 심어주었던 물질적으로 풍부한 동방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¹⁰⁾.

6) Manuel Lucena Salmoral. 앞의 책, p. 35.

7) 그러나 아메리카의 존재가 밝혀진 후 안정적 항로를 통한 대륙 탐사 원정대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형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국가의 통제력 또한 제한적이었다.

8) Manuel Lucena Salmoral. 앞의 책, pp. 32~33; 95~100.

9) F는 Fernando의 약자이며, Y는 Ysabel의 약자이다.

10) Cristóbal Colón. *Diario de a bordo*. Madrid. Ediciones Generales Anaya,

비센테 무뇨스 뿌에에스가 지적하듯, 정황상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고 동방에 대한 환상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¹¹⁾. 물론, 콜럼버스 자신이 중국 황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지팡구(현재의 일본) 남쪽에 펼쳐져 있다는 향신료와 금은보화가 가득한 동인도에 도달했으리라는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리적 오류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리상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을 발견했다는 생각은 신세계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희망으로 대체된다.

아메리카가 신대륙이자 신세계로서 서구인들에게 인식된 것은 원주민을 고유의 문화와 문명을 지닌 주체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향신료와 같은 환금성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광활한 지역의 단순한 거주민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대륙은 향신료와 금은 등 서구인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새로운 대상으로서 신세계가 된 것이다. 원주민들은 서구인들을 대적할만한 군사력이 없을 만큼 존재감이 미약한 저개발 지역민들이었다. 처음부터 원주민은 타자였던 것이다. 1493년 2월 15일 왕실 서기 루이스 데 산땅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가톨릭 양 왕을 위해 모든 섬을 점령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¹²⁾. “금 광과 은광에 접근하기 좋은 [...] 중국 황제가 있는 땅 같은 넓은 지역을 점령 하여”¹³⁾, 라는 묘사에서처럼 ‘점령’이라는 말에는 금과 은을 비롯한 물질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메리카는 물질적 욕망의 대상으로 체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동인도에 도착했다는 확신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인기 있던 향신료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신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금과 은에 대한 희망을 ‘당연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⁴⁾.

1985, pp. 35~36.

11) "Colón había leído, en el Libro de las Maravillas de Marco Polo, que el Gran Khan pidió al Papa Eugenio IV cien teólogos para convertir a los mogoles", 위의 책, p. 36. 각주 2.

12) "yo hallé muy muchas islas pobladas con gente sin número, y de ellas todas he tomado posesión por Sus Altezas", 위의 책, p. 225.

13) "en el lugar más conveniente y mejor comarca para las minas de oro y [...] así de la tierra firme de acá como de aquella de allá del Gran Can, adonde habrá gran trato y ganancia, he tomado posesión de una villa grande a la cual puse nombre la Villa de Navidad", 위의 책, p. 234.

14) "en ésta hay muchas especierías y grandes minas de oro y de otros metales.",

종교적 교세확장과 영혼구제라는 목적이 병존했다고는 해도, 항로 개척의 의도자체가 높은 환금성 사업성의 확보에 있었으며, 항로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소수의 성직자와 의료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 결국, 신대륙의 발견은 새로운 땅의 정복으로 이어졌고, 향신료를 대체할 황금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변모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군주는 황금에 눈이 뒤집힌 이들에게 정복사업을 허가했고, 그들의 에너지를 ‘신대륙’에 풀어놓았다. 일종의 투기사업을 활성화한 것이었다¹⁵⁾.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대양을 건넌고, 금의환향하거나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

2) 이상화된 현실과 환멸

콜럼버스는 항해일지에서 “새롭게 도착한 곳이 너무도 아름다워 낙원에 도착한 것 같다”¹⁶⁾고 감회를 적고 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경치는 아름다웠으며, 날씨도 카나리아 제도에서 보다 좋았고, 과실이며 동식물들은 다양했고, 그 개체 수 또한 놀라울 만큼 많았다.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주권을 유지할 물리적 저항력이 없는 원주민들만 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은] 태어날 때처럼 옷을 벗고 다녔으며, [...] 무기를 지니기는커녕 알지도 못했는데, 칼을 보여주자 날을 잡아 손을 베이곤 했을 정도였다”¹⁷⁾고 기술하고 있다. 서구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은 주인다운 주인이 없는 곳으로서의 신대륙을 의미했으며, 이는 점령의 당위성과 연결되었다. 무적함대를 위시한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규모 이동과 운송 수단을

위의 책, p. 227.

15) 존 H. 엘리엇. 『스페인 제국사 1469-1716』(김원중 옮김). 서울. 까치, 2001, pp. 62-63.

16) “sin comparación de la isla de Tenerife, todas hermosísimas, de mil hechuras, y todas andables y llenas de árboles de mil maneras y altas, y parece que llegan al cielo.”, Cristóbal Colón. 위의 책, p. 226.

17) “Ellos andan todos desnudos como su madre los parió. [...] Ellos no traen armas ni las conocen, porque les mostré espadas y las tomaban por el filo y se cortaban con ignorancia.”, 같은 곳.

결여하였으며, 제한적 농업 위주의 생산 구조는 서구가 원주민을 ‘야만’으로 규정할 명분을 제공하였고, 향후 식민정책에서 그들의 산업과 경제적 구조를 ‘저개발’로 규명하여 길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발론과 발전론의 인식적 명분으로 확장된다. 주인의 공감 없이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된 아메리카는 곧 탐욕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서구인에게 물질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 세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 이익 사업이 가능한 이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이상화된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유토피아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 유토피아의 개념은 토머스 모어가 쓴 동명의 작품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서구 사회의 이상적 세계관의 형상으로 비유되어 왔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를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의 이상국가 개념과 헤브라이즘에서의 낙원의 개념이 15세기 후반과 16세기에 급격하게 확산된 유토피아 세계관의 원형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세계로서 유토피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¹⁸⁾일 것이다. 탐욕과 불의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낙원은 인간이 성(性)을 모르는 한 지속되는 데, 성이 등장하거나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낙원에서의 추방이 이뤄졌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간의 성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랑과 가족, 재산의 개념은 유토피아 세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상에서 낙원의 이미지로서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잘 정리되어 있다. 모어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부정과 불행은 부자들의 음모에서 기인한다. 그에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체제의 근본적 개편, 즉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재산 공유제를 도입하는 선택뿐이었다. “사유재산이 폐지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와 인간세계의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류의 최대다수를 차지한 선량한 사람들이 빈곤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¹⁹⁾. 모어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정의와 행복이었으며, 사회정의와 행복은 평등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평등은

18) “La primera utopía aparece en el Génesis” Iván Gracia Sala. *Feminidad, deseo y utopía: las mujeres de Nosotros*. Madrid. Esclavística Complutense, 2007, pp. 7, 51-62.

19)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서울. 탐구당, 1989, p. 183.

사유제 사회에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어에게 있어 공유제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초기의 식민자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이었다. 아메리카를 정복한다고 믿었던 이들은 적극적 개념의 소유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고대 그리스 사상이나 무궁한 자원과 대상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는 ‘낙원’은 그 자체로 지상의 유토피아였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물욕을 채워줄 수 있는 ‘향신료의 꿈이 체화된’ 엘도라도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공유제로서의 유토피아와 본질적으로 대조되는 물질적 세계관을 지향했던 것이다. 신대륙 정복과 개발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인식은 철저하게 물질적 욕구의 대상이었으며, 공유제적 유토피아가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사고체계로 흡수되지 못한 채 속물적 형태로 남게 된다.

콜럼버스와 그 일행이 묘사하고 느꼈던 낙원의 이미지는 토마스 모어로 대표되는 정신적 낙원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엘도라도의 개념으로 흡수되어 형성된다. 막대한 양의 금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동인도 대신 신대륙이 엘도라도의 신화를 위한 공간으로 대체되고 체화된다. 엘도라도는 모험과 부와 탈출을 꿈꾸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현실과 신화를 결합시키며 찾아내려던 유토피아가 된 것이다.

결국, 낙원으로 비친 모습은 정복자의 욕망의 시각에서 기술된다. ‘보는’ 주체에 따라 ‘보이는’ 대상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 시각에서 아메리카를 낙원으로, 그리고 엘도라도로 보았던 서구인들은 현실과의 입체적 접촉을 통해 환상에서 깨어나는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여전히 아메리카의 거대한 영토와 자원은 대체된 향신료의 꿈으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으나, 물질적 유토피아의 꿈과 욕망은 집착의 크기만큼이나 큰 실망과 환멸로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상화된 환멸을 보는 시각이 서구인에만 집중이 되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땅은 일상적 삶의 터전일 뿐 낙원의 개념도 유토피아나 엘도라도의 개념도 개입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콜럼버스 이후 방문객은 점령자로 바뀌고 있었고, 낮은 삶의 패턴이 강제

되거나 자신들의 삶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서구와의 만남은 이상화된 낭만이나 욕망의 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수탈과 억압의 시작이 되었다. 엘도라도의 부재에 대한 자각과 환멸이 초기 정복자들이 겪은 정신적 공허함의 원인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정책의 부재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서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면, 원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해석과 기술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역사로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재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2. 재연된 기억

역사적 사건은 사건의 재연을 통해 그 의미가 현재화 된다. 사건의 재연은 기억의 서사 과정에서 현재적 의미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서사의 주체가 소유하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대륙 발견과 개발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는 다양한 시각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화 과정을 겪지만, 특히 주체에 따른 주관적 시각이 의미 해석과 형상화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일반대중이 현재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사건을 체감하는 인상과 이미지는 기억의 서사에 있어서 선택하는 주관적 시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기억의 재연에 있어서 서구적 서사와 아메리카적 서사의 두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역사적 사건의 재연 시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모든 영상물과 영화들이 단순한 분류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오버랩 되는 시각을 지향하거나 자체 모순적 시각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분류는 최소한의 구분을 통하여 종합적인 스펙트럼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또한 기억의 서구적 서사와 아메리카적 서사의 구분은 제작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

1) 기억의 서구적 서사

(1) 위대한 대서양 시대의 개막

서구의 주된 기억은 탐험과 정복을 대상으로 재연된다. 이때 정복의 의미는

발견에 대한 합리화의 시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발견을 바라보는 시각은 콜럼버스의 업적이 서구 중심적 시선에서 해석되어 왔으며, 낭만적으로 묘사되거나 서구적 역사 기록의 정당화에 치우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서구의 역사적 시선은 콜럼버스가 이룬 사건을 그 자체로서 인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발견’이란 서구 중심적이고 제국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양을 건너 인도로 가겠다는 서유럽 국가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호아킨 베라 감독의 다큐멘터리²¹⁾ [스페인 역사: 시간의 밤 XIV권. 아메리카의 발견]²²⁾는 전체 분량 55분 가운데 35분 이상을 서구가 축적한 대서양 개발의 위업과 의미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1477년 가톨릭 양 왕의 이름으로 정복이 완성된 카나리아 군도는 플라톤이 언급했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있었던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있으며, 플루타르크에 의해 ‘행운의 섬’이라고 불렸고, 호머의 율리시스가 헤매던 섬들이었을 개연성²³⁾을 역사적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대서양 향해 시대의 위대한 개막을 피력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술된다. 물론, 식민 이전 시대의 카나리아 군도에 대한 언급은 생략된 채, 카스티야 왕국에 귀속된 이후의 역사와 그 의미에 집중되는 것이다.

20) Manuel Lucena Salmoral. 앞의 책, p. 26.

21) 본 연구에서는 신대륙 발견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두 편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인용 빈도수와 판매량에 있어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추천 목록에 자주 등장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본 연구가 지향하는 상징성과 대표성으로서의 접근 시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22) [Historia de España: La noche de los tiempos. Vol. XIV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1995/55m. Producción de Televisión Española. Producción: Martín Cabañas, Antonio Ibañez; Dirección: Joaquin Vera.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1995’로 표기하기로 한다.

23) "La mitología grecolatina ubicaba en el entorno de las Canarias, situadas ‘más allá de las Columnas de Hércules’, en los límites del mundo conocido (‘la Ecúmene’), muchos de los relatos fantásticos de su tradición. Así la imaginación de los clásicos colocó sobre las islas los Campos Elíseos, las Islas de los Bienaventurados, las Islas Afortunadas, el Jardín de las Hespérides o la Atlántida platónica." [Historia de España: La noche de los tiempos. Vol. XIV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카나리아 서쪽 대양은 ‘두려운 바다(mar tenebrosa)’였으며, 구체로서의 지구의 공간적 구성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던 소수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평평한 지구의 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시기였음이 강조된다. 이윽고 시작될 서쪽 항로 개척 모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피력하기 위함이다. 영상물에 의하면, 콜럼버스와 핀손 형제의 신대륙 발견이 인류사적 위업이라는 실로 격정적인 기억으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영상물은 항로 개척 여행의 후원자를 찾는 콜럼버스의 다각적인 노력과 과정을 역사 기록물의 고증을 통해 밝힌다. 원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은 담담하게 묘사되며, 온순하고 저개발된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기록한 콜럼버스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영상물을 통해 재연된 과거의 기억은 대서양 항해와 탐험이 얼마나 위험한 역사(歷史)인지 고증한 뒤, 콜럼버스의 위업을 고양하며 마무리 되는 형식으로 서술된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신의 축복이고 카스티야 왕국의 행운이라는 것이다. 베라 감독은 발화자를 통해 ‘끝없는 크기의 땅, 아메리카는 신대륙,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어, 사제, 군인, 상인 등이 서로 앞 다투어 그곳으로 향하게 되지만,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야돌리드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하며 영웅으로서 콜럼버스의 역사적 의미에 걸여를 구성한다. 55분 분량의 영상물에 원주민들의 주체적 입장이 부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주민들에 대한 언급자체가 거의 생략되었다.

콜럼버스의 이미지와 관련된 서사가 집중된 작품은 [1492, 낙원의 정복]이다. 영화는 플래쉬백을 사용해서 ‘콜럼버스 아들의 회상 - 아버지 콜럼버스의 회상’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형성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마녀사냥, 교회의 독선, 귀족의 횡포, 스페인 왕실의 경제적 궁핍 등으로 기술한다. 기억의 서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스콧 감독이 콜럼버스를 인도주의적 성격의 인문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이사벨라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의 원주민 노동력의 착취와 금을 비롯한 광물자원의 수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그려진다. 미신과 공포가 주도하던 암흑의 시대인 15세기 후반 귀족과 교회의 위선과 무지에 대항하여 불가능으로 보였던 탐험을 성공시켰으나 귀족과 교회의 음모에 무너지는 몽상가이며 영웅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콜럼버스

는 스콧에 의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²⁴⁾. 이는 교회에 충실한 종이며, 지적 호기심과 인도주의적 면모에 국가에 충실한 신하로 묘사되는 엘시드에 대한 묘사를 상기시킬 만큼 스콧의 한계를 드러낸다. 작품은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동기로 스페인, 프랑스, 영국과 미국이 합작한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는 역사적 기억을 많은 부분 왜곡하고 훼손한다. 영웅의 탄생을 위해 15세기 후반 교회와 대학을 무지와 위선의 현상으로 묘사한다. 구체로서의 지구에 대해 벌어진 살라망카 대학에서의 청문회도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로서의 지구에 대한 회의는 무지한 일부 대중의 몫일뿐이었다. 화형과 억압의 이미지 또한 콜럼버스의 용기와 결단력을 강조하는 장치로 과장된 스콧의 수사(修辭)이다. 스콧 감독은 여인들을 음식이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귀족들의 시각과 수탈의 대상으로서의 원주민 처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콜럼버스의 난처한 입장을 묘사했지만, 그의 고뇌가 지닌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²⁵⁾. 위대한 대서양 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한 콜럼버스의 시대를 뛰어넘은 위대함에 대한 묘사가 초점을 구성하다보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묘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대중 오락물로서 성과 폭력이 자극적 요소로서 대중매체로서 영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24) "Columbus is, by turns, the Renaissance man hungering for knowledge. 'I want to find out for myself!' he declares when warned about the unknown dangers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He is described as] the true son of the Catholic church, a gold-hungry conquistador, and a multiculturalist who wants to protect the lives and civilization of the Tainos tribe that has welcomed him to America." Alleva, Richard. *Commonweal*, 11-20-92, Vol. 119. Issue 20: 20-21.

25) 역사적 기억의 재연이라는 시각에서 알레바는 고문과 성적 수탈, 절단의 폭력이 낙원을 파괴하는 동안 콜럼버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스콧 감독의 성찰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반문한다. "What is Columbus doing while rape and rapine are destroying paradise? [...] Columbus was as bad at administration as he was great at navigation, but was it necessary to make him a simpleton in order to exculpate his possible guilt? That all torture, rape, and mutilation were stopped? [...] Ridley Scott worrying about his audience being bored when there's no sex or violence on screen.". 같은 곳.

정복의 역사적 사건이 무역의 본질을 바꾸면서 인류역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하는 위아다와 클라인의 경우 또한 서구 중심의 역사적 시점에 집중된다. 그들은 탐험과 정복이 무역을 촉진시켰으며, 지중해 중심이 대서양으로 옮겨졌고, 이러한 정복은 결국 식민정책의 탐색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인종적 관계를 가져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렸을 뿐 아니라, 인류의 전망 또한 넓어져 갔다²⁶⁾ 아메리카 정복이 위대한 대서양 시대를 열었다는 서구 중심적 합리화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복의 당위성과 과정의 합리화

레온 대학에서 제작된 [스페인 신 역사 10권. 아메리카의 발견]²⁷⁾는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 존재하던 고대 문명의 흔적과 상황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 뒤에 아메리카 식민의 역사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1995’가 식민 이전 시대 아메리카의 문명과 이후 서구와의 관계에 대해 거의 기술을 하지 않는 것과는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위대한 대서양 시대의 개막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메리카를 본질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점을 달리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2002’는 콜럼버스 이전 문명이 서구 문명과 결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에 대한 접점에 대한 서술에 주목한다. 두 문명의 접촉은 인적 요소에 의해 구성되고 있으며, 원주민 여인과 유럽 백인의 자유로운 성적 접촉이 한 요소임을 밝히며 아메리카의 혼혈 문화의 시원과의 연관관계를 강조한다. 피정복자를 여성으로 정복자를 남성으로 묘사하는 상징화하여 남성중심주의의 본체를 유럽으로 구성하여 해석하고 있

26) Howard J. Wiarda and H.F. Kline. "The pattern of Historical Development". pp. 19-36 in H.J. Wiarda and H.F. Kline(ed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e*. (Boston. Houghton Mifflin, 1985) “식민시대의 유산”,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격동하는 정치사회』(김병국 외 옮김). 서울. 나남, 1991. p. 60.

27) [Nueva historia de España -10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2002/60m. DV-420/ Universidad de León. Mediateca. 본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2002’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는 점에서 지극히 서구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és)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왕족과 귀족으로 구성된 원주민 상류 특권층과 원정대의 소통을 위해 코르테스가 원주민 여인, 말린체(Doña Marina의 세례명으로 개종하며 통역의 역할을 수행한다)를 성육의 대상으로 넘어서 전략적 매개로 활용했던 것처럼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의 대부분은 실용적(pragmático)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또한 목테수마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아스테카 왕국은 몰락하게 되지만,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한 것은 스페인 원정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의 변절과 무능에 반기를 든 아스테카인들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코르테스는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원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인구의 감소의 주된 원인은 유럽의 각종 전염병들, 특히 홍역, 천연두, 독감 등이었음을 강조한다. ‘다큐멘터리-1995’와 비교하여 객관적 요소들에 주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의 월등한 병기들과 전술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의 물리력에 대한 서술부분에서 현역 육군 소장이며 발레아레스 역사연구소 명예회원인 호세 안토니오 프레스뽀 프란세스의 말²⁸⁾을 인용하면서 잉카인들의 병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기술한다. 장군의 언급은 당시 사건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부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에 의하면, 무장하지 않은 온순하게 살고 있는 낙원의 이미지가, 살상과 더불어 그들의 식민정책과 관련되면 놀라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만만치 않았던 원주민이 된다. 객관적인 전력의 비교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인용하며 분석적 시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큐멘터리-2002’ 역시 고착된 서구중심의 시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물의 후반부는 ‘정복’의 어휘로 대표되는 식민의 역사에 대한 주제별, 시대별 접근이며, 거시적 시

28) "No podemos olvidar que por ejemplo, los indigenas tenían unas espadas de madera, casi más largas que las toledanas, (de) noventa centímetros que estaban perfectamente en todos los dos filos sembradas de unas láminas finísimas y obsidianas. Las láminas y obsidianas [son los] que los peruanos las empleaban en operaciones quirúrgicas. Con éstos cortaban perfectamente un papel. Una persona con un simple golpe puede ser descapitada."

각에 제한되어 있다. 이후 금광과 은광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자원 확보와 유럽시장으로의 유통에 대한 서술이 계속되고 강조되며, 그 과정에서 도시와 지역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서술이 진행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은 수동적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피상적이며, 오랫동안 관행처럼 생각되었던 ‘근대화’의 시각이 서구의 판단에 의해 요구되는 필연적 조건이었음을 합리화한다. 마지막 주제인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란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혼혈’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함으로써 현재와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 서구 주체적 성찰과 반성의 시각이 부족하다. 서구적 서사에 있어서 낙원과 유토피아는 아메리카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각이며, 정복과 점령, 그리고 개발로 이어지는 식민의 합리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2) 기억의 아메리카적 서사

콜럼버스의 진출 이후 아메리카와 서구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의 아메리카적 서사는 수탈로 함축된다. 두 문화적 주체의 만남이 아메리카에 대한 서구의 수탈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질적 요소의 결합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토착 원주민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위아르다와 클라인의 “라틴아메리카는 비유럽대륙 중 가장 처음으로 서구화되었다. 유럽인들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접촉한 이후 이 지역의 문화는 붕괴되었으며, 그런 상황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²⁹⁾는 지적은 라틴아메리카가 직면했던 당시 상황이 서구 주체의 일방적 개입과 주도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 서구는 원주민의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리 했음은 물론이고,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주의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갈레아노가 지적하듯, 원주민의 문화는 토착적 공예로서 서구적 예술과 문화에 하위하는 저급한 가치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원주민들의 인신공양 및 희생제의 등의 문화적 전통은 복음화와 박해를 위한 구실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과 경영의 합리적

29) Howard J. Wiarda and H.F. Kline. 앞의 책. pp. 59-60.

구실을 제공하였다.

(1) 물신적 꿈과 수탈의 공간

서구의 시각에서 아메리카는 처음부터 물신적 꿈의 체화된 공간이었다. 본격적인 대서양의 시대를 연 카스티야 왕국은 콜럼버스를 통한 투기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토회복 전쟁은 왕실의 금고를 텅 비게 만들었고, 실현가능성도 모호한 서쪽 항로 개척에 경제적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인도의 동쪽에 존재한다는 약 3천개의 섬과 그곳의 특산물인 금과 진주의 산, 12종에 달하는 많은 양의 향료, 똑같이 대량의 검거나 흰 후추는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통해 물신적 꿈으로 재생산을 거듭하였고, 콜럼버스와 동시대인들에게 판타지의 꿈³⁰⁾이었다. 갈레아노는 향신료의 중요성이 콜럼버스 항해의 탐험 원조의 결정적 동기였으며, 무역을 독점하는 중개업자나 투기자의 사슬에서 벗어나며, 상거래의 결제수단인 귀금속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지적한다. 보헤미아, 작센, 티롤의 은광맥이 이미 고갈되어 전 유럽이 은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³¹⁾이었다는 것이다. 향신료의 꿈이 사라졌어도 아메리카는 여전히 물신적 꿈의 공장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수탈로 확장된 것으로 묘사된다. 엘도라도의 꿈은 향신료를 대체하였다.

엘도라도의 전설은 정복과 원정을 합리화하고 구조화하는 빌미가 되었지만, 곤살로 피사로에서 월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좌절을 맛볼 뿐이었다. ‘은을 분출하는 산’의 환영은 1545년에 포토시의 발견에 의해 현실이 되었지만, 많은 탐험가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에 쓰러지든가, 원주민의 화살에 죽어갔다. 갈레아노는 당시, 금과 은은 르네상스가 천국의 낙원의 문과 지상의 자본주의적 상상주의의 빔장을 여는 데 사용한 열쇠였으며, 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인의 서사시적(敍事詩的)인 위업은 기독교 신앙의 보급과 현지의 부(富)의 횡령 및 약탈을 결합시켰음을³²⁾ 상기한다.

카를로스 사우라의 [엘도라도]는 물신적 꿈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

30) 갈레아노. 『수탈된 대지』(박광순 역). 서울. 범우사, 1988, p. 60.

31) 같은 곳.

32) 위의 책, p. 63.

에 집중하였다. 영화는 1560년 펠리페 2세 치하의 페루 산파 크루스 데 까뻬 꼬바르에서 엘도라도를 찾는 원정대의 여정으로 시작된다. 황금에 대한 탐욕은 7년의 세월 동안 아마존 유역을 헤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8개월의 지체와 항해의 어려움은 원정대의 사기를 꺾었으나, 알론소 데 에스페반 대장은 반역과 반란을 평정하며 힘들게 진군을 한다. ‘나는 지쳤소. 한데, 엘도라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자신과 대적점에 있는 아기레에게 고백한다. 영화는 초반 5분을 제외하고 이후 137분이 진행되는 동안 끝없는 절망과 회의 속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원정대를 묘사한다. 황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원정대장의 혼혈 애인인 이네스를 통해 체화되며, 그녀는 모든 남성들의 표면적 갈등의 원인으로 등장한다. 그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녀 곁의 남성들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며, 탐욕은 혼란과 내분을 거쳐 비극으로 확장된다. 대장의 암살 이후 원정대는 아기레의 독선으로 점점 좌초된다. 이 과정에서 이네스와 아기레의 딸, 엘비라는 원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상징한다. 원정대장의 애인으로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물화된 이네스는 희망의 원정에 따라나섰다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는 원정대원들의 모습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엘비라는 원정의 후반부를 지휘하는 독선적인 아버지, 아기레의 모습에서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드러낸다. 초기 원정대의 탐욕과 폭력에 대한 아메리카적 시선의 고발을 상징한다. 식민지의 모국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의식은 원주민 혼혈 엘비라와 아버지, 아기레와의 관계로 함축되는 것이다. 귀족 출신의 에스테반이나 평민 출신의 아기레 모두 물신적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감독 사우라는 죽어가는 아기레의 환영을 통해 혼혈 문화인 라틴아메리카의 실체를 반영하는 딸, 엘리바가 스페인인이며 정복자인 자신의 만행으로 죽어가는 끔찍한 자각몽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물신적 꿈인 엘도라도는 다만 스페인 정복자와 원정대의 비극이 아니라, 혼혈 문화로서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이며 현실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묘사이다. 원정은 1562년 아기레와 엘비라 부녀와 다른 많은 대원의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엘도라도의 꿈은 허구로 사라졌지만, 권력의 주체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사우라 감독은 이

영화에서 뛰어난 연출력과 주제의식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그 비극적 결말의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억을 재연하는 아메리카적 시선을 집약할 수 있는 인종, 계층, 종교 등의 갈등에 대한 묘사는 제한적으로 연출하는 한계를 지닌다.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수탈에 대한 연출 또한 인간 내면의 문제라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종속되어 그 의미는 반감되어 묘사되었다.

사우라의 [엘도라도]가 서구가 아닌 인간의 탐욕과 비극적 상관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미하일 칼라토조프 감독의 [나는 쿠바]³³⁾는 콜럼버스와 신대륙의 만남을 ‘고맙습니다, 콜럼버스님. 당신이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노래했고, 미소를 지었지요. 저는 인사를 드렸고, 당신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³⁴⁾ 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쿠바 입장에서 본 서구의 수탈을 지적한다. 칼라토조프는 여성으로 체화된 쿠바의 목소리를 통해 서구의 긴 수탈의 역사가 사탕수수로 응축된 은유의 노래를 낭송한다. ‘배들이 저의 설탕을 실어가곤 했지요. 눈물이 저를 적시고요. 설탕은 이상하기도 하지요, 콜럼버스님. 설탕에 눈물이 많을수록 더욱 달콤하니까요.’³⁵⁾ 1부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숨긴 채 미국인 출입 바에서 베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은 철저하게 자본에 종속되어 파괴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고 있다. 마리아는 ‘Sure, Mister! Baby. Money’의 단어만으로 미국인 고객들과 소통할 뿐이다. 이때의 소통은 돈을 매개로 한 거래이며, 영혼의 매춘으로 묘사된다. 격정적인 아프로 라틴 음악과 리듬만이 그녀의 외형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수탈의 역사가 철저한 종속으로 고착되는 사회에서 그녀는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2부에서는 사탕수수밭의 소작인 노인이 한 순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칼라토조프 감

33) 4부로 구성되어 있는 [나는 쿠바]에서 감독은 1부와 2부에서 서구와 쿠바의 만남이 철저하게 종속과 수탈의 관계에 있음을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3부와 4부는 혁명의 동기와 당위성을 피력한다.

34) "Gracias, señor Colombo. Cuando ud. me vió por primera vez, yo cantaba y reía. Yo saludé. Creí que me traía la felicidad. Soy Cuba."

35) "Mi azúcar se la llevaban los barcos. Mis lágrimas me las dejaban. Estraña cosa es el azúcar, Sr. Colombo. Tanto llanto en ella y sin embargo es dulce."

독은 수탈에서 박탈로의 전환을 감성적 자극에 호소한다. 농장주 아코스파와 노인 노동자 페드로의 대화이다. ‘A: “페드로, 일하고 있나?” “이제, 자네는 좀 쉴 수 있게 됐어.” “땅을 유나이티드 프루트에 팔았거든.” P: “제 집은요?” A: “자네 집?” “이젠 자네 집이 아닐세.” “자네가 잇은 모양인데, [자네가 (뭔지도 모르는 채) 동의 서명한] 이 서류는 위조할 수가 없는 걸세.”³⁶⁾ 수탈에 이어 조직적인 박탈에 느닷없이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긴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친척으로 알아온 사탕수수밭 일의 시절을 떠올린다. 아내를 만나고, 애들을 낳고, 소나기가 몰려와도 매일같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터전, 사탕수수밭. 쿠바인들에게 사탕수수밭은 노예로 끌려와 시작했던 먼 조상 때부터의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수탈의 현장이었다.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음에 광기에 휩싸여 사탕수수밭을 불태우며 불구덩이 한 가운데 몸을 누이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아버지인 노인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코카콜라를 마시며 모처럼의 행복감을 만끽한다. 사탕수수 농장의 거친 노동이 수탈을 거쳐 자본의 축적을 통해 증속되고 고착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2) 폭력과 인종 학살

초기 서구인들에게 정복³⁷⁾은 단순한 의미에서는 땅의 점령과 개발을 뜻하지만, 진전된 의미에서는 대지가 품고 있는 목축과 전리품, 그리고 금은보화

36) "Pedro, ¿trabajando? Ahora, tú tendrás un descansito. Le vendí las tierras a United Fruit. ¿Y mi casa? ¿Tu casa? ¡Ya no es tuya! Pues, que te olvidaste de esto. Esta firma no se puede falsificar."

37) 정복과 관련된 용어로 점유, 점령, 개발, 수탈 등의 어휘는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 그 의미의 전달 의도가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와 같은 최초의 항해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점령이나 점유 정도의 소유와 관련된 어감의 'posesión'라는 15세기적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이후 피사로 등의 원정대는 정복과 세력의 확장이라는 개념의 'conquista'라는 어휘를 압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초기 정착 식민통치자들은 개발이라는 의도로 'desarrollo'나 'explotación'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토지의 개념이 발견 초기에는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채 정치적 의미의 정복과 점유의 개념이 강했으나, 점차 경제적 개발의 의미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등 이동이 가능한 대상에 대한 수탈로 확장된다³⁸⁾.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 정복의 목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올바른 경영보다는 확실한 수탈이 정복과 식민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콜럼버스는 단기적 투기 모험 사업 가였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³⁹⁾. 카리브에 도착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던 그가 주목한 것은 거주나 경영이 아닌 개발에 의한 이익이었다. 스스로를 수탈의 주체로 드러낸 것이다. 콜럼버스와 동료들이 원했던 것은 환금성 작물로서의 향신료였으며, 이는 곧 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에 대한 집착과 환상은 정황상 비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왕실에 신고할 향신료와 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된 콜럼버스는 그를 대체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바로 노동 공급원으로서의 원주민⁴⁰⁾이었다. 영혼 구제와 인디언 노동력 의존의 경제 구조는 이율배반적인 식민 목적이었으며, 동시에 상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원주민 노동력 착취와 폭력적 통치의 구조는 토착 원주민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서구적 잣대와 편견이 합리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질적 탐욕에 의한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배경은 포교의 필요성에 의해 구체화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 토착 원주민의 사교(邪教)는 기독교 정신과 합치될 수 없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합리화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원주민의 노동력 착취와 폭력적 통치는 수탈에 이용되는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갈레아노는 서구의 입장에서 아메리카는 광대한 악마의 제국이었으며, 따라서 토착민의 사교(邪教)의 극복을 노리는 광신적인 포교는 신세계의 재보가 정복자들 사이에 불러일으켰던 열광과 혼동되고 있었다며, 에르난 코르테스의 동료였던 베르나르 디아스 델 카스티요가 ‘신과 여왕 폐하에 봉사하기 위해, 또한 부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이 멕시코로 갈 수 있었다는 회고에 주목⁴¹⁾한다.

38) Leslie Bethell(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I. Colonial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Historia de América Latina I. América Latina Colonial: La América Precolombina y la conquista.*(traducción por Antonio Acosta).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1984, pp. 125, 128.

39) 위의 책, p. 134.

40) 같은 곳.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⁴²⁾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분쟁이 과라니 원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역사의 기억을 재연하는 영화이다. 이질적 문화간의 만남에 있어서 서구의 시선과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시선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토 분쟁의 이유는 분명하다. 강제 노동력으로서 원주민의 노예화를 둘러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결구도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 교황청이 중재를 나섰고, 원주민의 선교에 나섰던 예수회가 원주민 지역 보호를 옹호하면서 사건이 발생한다. 원주민 사냥꾼이었던 로드리고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동생을 함정에 죽인 뒤 방황하던 끝에 가브리엘 신부의 제안으로 원주민 포교를 위한 수사신부가 되면서 정복의 문제는 ‘서구인의 성찰적 시선’으로 초점이 전환된다. 하지만, 원주민 노예제를 옹호하는 서구의 시선은 저개발의 원주민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서 동물이라 생각하는 반면, 가브리엘과 예수회 신부들은 원주민의 보호를 위해 정치적 절충과 제안을 거부하며, 서구 제국의 무력적 시위 앞에 원주민 보호와 인권 옹호는 무기력하게 몰락한다.

콜럼버스의 이상국가가 서구적 가치에 의한 백인의 세계였다면, 가브리엘 신부의 이상국가는 선교의 목적과 상충되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중심의 세계를 지향했다. 롤랑 조페 감독은 서구 제국주의의 폭력을 강조하고,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의 숭고한 희생을 부각시키며, 과라니 원주민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선교 신부들의 방문조차 되돌리고 싶은 역사의 기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주교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회상과 원주민의 ‘(서구의) 하느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버려졌다’는 증언은 역사의 기억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잘 드러

41) 갈레아노, 앞의 책, p. 62.

42) 영화 [미션]은 신대륙 발견과 신세계 건설의 주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역사와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1758년에 1750년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한 역사물을 근간으로 원작과 각색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복자로서 서구 시선과 피정복자로서 원주민의 시선이 교차된다는 의미에서 ‘정복’과 ‘수탈’의 주체가 논의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의 견제 속에서 교회가 예수회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희생시켜야 했던 시대적 상황 분석에 초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낸다. 조페 감독의 우수성은 서구 제국의 탐욕과 끝없는 물신적 갈증에 대한 현대인들의 분노와 슬픔, 그 공감의 식민에 대한 원주민의 시선과 객관적 공감대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의 기억에 대한 성찰적 재연을 구사하는 데 있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⁴³⁾라는 주교의 고백은 역사의 기억과 기억의 재연이 주는 긍정적 의미를 상기시킨다.

원주민에 대한 서구의 인식 태도는 일방적이었고 따라서 폭력적이었다. 제임스 악스텔⁴⁴⁾은 플로리다의 반 콜럼버스 신문의 편집자인 잔 엘리엇(Jan Elliott)이 콜럼버스의 태도를 인종 학살이라는 규정짓고 있음을 인용한다. [1492, 낙원의 정복]에서 스콧 감독이 콜럼버스를 원주민의 인권을 배려하는 인문주의자로 묘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수탈의 역사에 대한 엘리엇의 판단은 단호하다.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서구의 침입은 폭력적이었고, 인종 학살을 자행했으며, 콜럼버스는 역사상 최대의 인종학살의 주범이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히틀러의 대학살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것⁴⁵⁾이라는 논리를 피력할 뿐 아니라, 콜럼버스 이후 아메리카는 서구의 침략과 학살, 노예제도, 자원과 광물의 수탈의 장이 되어왔음을 고발한다⁴⁶⁾. 원주민을 서구의 침탈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극대화된 시각이다. 물론, 원주민의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인종 학살이란 어휘를 적용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종 학살이란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인종은 정치, 문화적 동일 집단과 교차적 개념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우월한 집단인 국가나 단체

43) "So, your holyness now your priests are dead and I'm left alive. But, in truth it is I who am dead and they who live. For as always your holyness, the spirits of dead will survive in the memory of living."

44) James Axtell. "The moral dimensions of 1492". *Historian*. Vol. 56(Autumn 1993): Issue 1. pp. 1-13.

45) "Jan Elliott, the editor of *Indigenous Thought*, a Florida-based anti-Columbus newspaper, described the loss of American Indian life as "the biggest holocaust in history and called Columbus a "mass murderer." Elliott wrote in the first issue that "Celebrating Columbus' 'discovery' of America is analogous to celebrating Hitler's holocaust."" James Axtell. 위의 논문. p. 1.

46) "[...] after Columbus, America was the scene of "invasion, genocide, slavery, 'ecocide'" and the "rape of mineral as well as natural resources.". 같은 곳.

가 같은 집단 내에서 유사성으로 공통화되는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학살이란 의미에서도 잔 엘리엇의 주장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의 입장에서는 노동력과 정보제공 협조자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법률로서 일반인의 상해와 살생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콜럼버스가 통치를 시작했던 카리브 지역에서 원주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급감한 것은 사실⁴⁷⁾이지만, 홍역과 천연두, 매독과 같은 질병이 원주민들의 죽음의 직접적이고 큰 원인이었음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엇의 시선은 역사의 기억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서구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맺는 말: 역사 기억 재연의 현재적 해석의 의미

역사를 기억하고 재연하는 것은 언제나 후세의 몫이다. 기억의 재연은 나름의 시각에서 구성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재연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재해석을 요구하고 언제나 현대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는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편향적일 개연성을 지닌다. 해석의 현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개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중문화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의미에서 영상물을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진행되었다.

아메리카는 서구의 필요에 의해 신대륙이 되었으며, 그들의 물신적 탐욕이 정복의 합리화와 정당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향신료의 꿈으로 체화된 서구의 탐욕은 아메리카를 신대륙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엘도라도와 물신적 유토피아 등으로 동력을 얻었고, 이후 수탈과 종속의 불균형적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대륙 발견의 의미에 대

47) "Veinticinco años después del descubrimiento ya no había taínos en las Bahamas: los españoles los habían esclavizado y conducido a La Española. Un siglo después del descubrimiento, los taínos se habían extinguido en todas las islas del Caribe." Cristóbal Colón. 앞의 책, p. 64, 주석, 47.

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대륙 발견의 의미는 서구의 전통적 시각과 자성적 시각을 비롯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적 시각과 미래지향적 시각 등으로 다양하게 재연되어 해석되고 있다.

[향해 일지]에서 낙원으로 묘사되었던 아메리카는 ‘다큐멘터리-1995’에서는 서구의 자연스러운 물욕의 대상으로 기술된다. 위대한 대서양의 시대를 개막한 서구에 대한 보상의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1492, 낙원의 정복]은 신대륙 발견이 단순한 낭만적 사건을 넘어 고난을 극복한 역사의 대기록이었으며, 그 과정에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마녀화형과 같은 암흑으로 상징되는 시대에 위대한 인문주의적 이상주의자로서 인간, 콜럼버스를 재발견하는 데 집중한다. 반 콜럼버스 신문의 편집자인 엘리웃이 그를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로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큐멘터리-2002’는 독자적 문화를 지니고 있던 아메리카가 유럽과 만났음에 주목하여, ‘다큐멘터리-1995’가 드러낸 서구 일방의 시각을 극복하고는 있으나, 동등한 조건에서 서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군사력과 전략 등에 집중하며 정복의 당위성과 개발론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엘도라도]는 스콧의 영화에 비해 두 문명의 만남을 객관적 실체로 보려는 많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사우라는 서구의 탐욕과 원주민의 비극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형이상학적 의도로 연출함으로써,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중적 메시지의 효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나는 쿠바]는 수탈의 고착화의 기본 뿌리에 콜럼버스를 두고 있으며, 애초의 만남 자체가 비극적 관계를 열어준 계기로 판단하며 저항의 대상으로 이미지화한다.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은 엘도라도의 꿈을 좇던 이들의 망령을 통해 수탈의 아픔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 확장하며 서술함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관계를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주제로 보며 서구와 라틴아메리카의 화해의 가능성을 보편적 가치라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하일 칼라토조프 감독은 수탈의 고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연된 실체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고발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기억의 아메리카적 서사를 대립과 갈등에 이은 저항의 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칼라토조프 감독은 역사 기억의 재연을 1958년 쿠바 혁명의 당위성과 의도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 다소 과장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미션]은 원주민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1492, 나원의 정복]나 [엘도라도]와 차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회 신부들을 매개로 원주민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그들의 숭고한 죽음에 주목함으로써, 토착원주민의 입장이 구체화되기에 한계를 지닌다. 라틴아메리카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매체로서 영화와 영상물이 지니는 긍정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역사 기억의 재연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논문과 연구보다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자아낸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199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야끼체 원주민 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는 자신의 조국 고타말라가끼체 원주민을 탄압했음을 고발하는 『나, 리고베르타』를 통해 콜럼버스 이후의 수탈과 착취는 5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993년 유엔은 ‘세계 원주민의 해’를 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성의 의미는 역사적 사건의 현대적 재연과 재해석의 문제와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역사의 기억은 시대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재연되고 재해석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비평시각도 과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전망하려는 의도에서, 현재 나와 우리 속에서 그 관련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의 이미지는 대중적 인식과 이미지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중적 인식과 이미지의 복합적 실체에 대한 지속적 접근과 분석 및 해석 작업이 의미를 지닌다.

❖ 참고 문헌

- Alleva, Richard 'Commonweal', 11-20-92, Vol. 119. Issue 20.
- Axtell, James "The moral dimensions of 1492", *Historian*. Vol. 56(1993). Issue 1.
- Bethell, Leslie(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in America I. Colonial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ducido por Acosta, A. *Historia de América Latina 1. América Latina Colonial: La América Precolombina y la conquista*.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1984.
- Colón, Cristóbal *Diario de a bordo*. Ediciones Generales Anaya, 1985.
- Elliott, Jan "Exhibiting Ideology: A Review of 'First Encounters: Spanish Exploratin in the Caribbean and the United States, 1492-1570).'" in *Confronting Columbus: An Anthology*, Yewell, J., Dodge, Ch., and DeSirey, J. eds. N.C. Jefferson, 1992.
- Galeano, Eduardo *Venas abiertas*. 『수탈된 대지』(박광순 역). 서울. 범우사, 1988.
- García Sala, Iván *Feminidad, deseo y utopía: las mujeres de Nosotros*. Madrid. Esclavística Complutense, 2007.
- Lucena Salmoral, Manuel(Coordinador) *Historia de Iberoamérica, Tomo II, Historia Moderna*. Madrid. Cátedra, 1990.
- Pigafetta, A. *Primer Viaje alrededor del mundo*. 『최초의 세계일주』(박종욱 역) . 서울. 바움, 2004.
- Wiarda, Howard J. and Kline H.F. "The pattern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Wiarda, Howard J. and Kline H.F.(ed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e*(Boston: Houghton Mifflin, 1985), “식민시대의 유산”, 『라틴 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격동하는 정치사회』. 서울. 나남, 1991.
-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서울. 탐구당, 1989.
- 이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시사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1994.
- 존 H. 엘리엇(김원중 역)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서울. 까치, 2001.

영상물

- [1492, Conquest of Paradise]. Ridley Scott(Director). UK/France/Spain. English. Color, 1992.
- [El Dorado]. 149m. Carlos Saura(Director). Spain/France/Italy. Spanish. Color,

1988.

[Historia de España: La noche de los tiempos. Vol. XIV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55m. Martín Cabañas y Antonio Ibañez(Producción); Joaquin Vera(Dirección). Producción de Televisión Española. Spain. Spanish, 1995.

[Mission]. 126m. Roland Joffé(Director). UK. English. Color, 1986.

[Nueva historia de España -10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60m. DV-420/ Universidad de León. Spain. Spanish. Mediateca, 2002.

[Soy Cuba]. 141m. Mikhail Kalatozov(Director). Soviet Union/Cuba. Spanish. Black and White, 1964.

❖ ABSTRACT

The New Continent, shadow of the desire for the West
- focusing on the images through films

Park Chong-Wook

Historical accident survives by the memories of the descendents and coming ages. And its reconstructions get new meanings through the interpretations of them. The Discovery of America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with passing eras. There have been many interpretations about this historical fact, but most of them are reflecting the perspectives of the westerners. Between the westerners and american indians or latin americans there is no objective perspective to evaluate the Discovery of America. In this case, objectivism is not a fixed form, but a flexible one through times. Now we, the contemporaries are living the world where the visual images and cultural codes are full everywhere. Therefore the films and documentaries are available to interpretate the modern meanings, reconstructing the historial accidents with visual images and cultural codes, with which the modern people think and cognize the world where they live. In this investigation we've planned to analyze the necessity and advantage of using the films and documentaries to know how the contemporaries recognize the Discovery of America and evaluate it. To realize this investigation we've analyzed some films and documentaries such as [1492, Conquest of Paradise], [El Dorado], [Mission], [Soy Cuba], [Historia de España: La noche de los tiempos. Vol. XIV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Nueva historia de España -10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comparing with the historical documents, essays and books like *Diario de a bordo*, *Venas abiertas*, *Primer viaje alrededor del mundo*, etc.

Columbus described the America as a Paradise in [Diario de a bordo],

but [Historia de España: La noche de los tiempos. Vol. XIV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considers America as mine of gold, silver, and natural resources, alluding that the westerners deserve the Discovery of America as a reward. At least, [Nueva historia de España -10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recognizes the cultures and civilizations of the american indians and latin americans, even though the documentary rationalizes partially the cruel and violent behaviors of the westerners in the process of Conquest and Exploitation. [1492, Conquest of Paradise] emphasizes how warm-hearted person was Columbus with everyone including even indians who practically had died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as mentioned in the book, *Venas abiertas* of Eduardo Galeano. [El Dorado] tells us how greedy the explorers for worldly riches in America, but Carlos Saura emphasizes more on the weakness of the human being. [Mission] shows how the desire and ambition for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Spain and Portugal destroyed the happiness of the guarani who inevitably sacrificed the missionaries. Mikhail Kalatozov accuses Columbus and the westerners in America of the violent exploitation in [Soy Cuba], considering the Discovery of America as tragic reencounter between two Continents, while Jan Elliott accuses Columbus as historically most cruel murderer, judging him as person responsible for the genocide of the indians.

Now in the 21st century films and documentaries have the advantage of reflecting the mind and thoughts of the contemporaries. Therefore we've focused on how the films and documentaries reconstruct the history in the mind and thoughts of the people. The meanings of the Discovery of America always can be re-interpreted by the new perspectives of descendents, coming ages and others.

Key Words

Discovery of America, History of Exploitation, Image of Desire, Latin America, Memories of History, Reconstruction of Memories, Columbus, Species, Analysis of films and documentaries, Utopia, El Dorado, [1492, conquest of Paradise], [El Dorado], [Soy Cuba], [Mission], Diario al Bordo, Primer viaje alrededor del Mundo, Venas abiertas

논문접수일: 2009. 4. 21.

심사완료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6. 01.